

축복된 삶

고린도후서 4 : 16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다시 새로운 해를 주셨습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축복 중의 하나입니다. 잘못된 지난 일들은 다 뒤로 던져 버리고, **새 마음으로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에 대해 말하길,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고후 4:16)고 하였습니다.

겉사람은 점점 늙어 가지만, 속사람은 더욱 새로워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하며,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야 하는 운명을 가진 사람이 기독교인이라 믿습니다.

잠언서 기자는 **나의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 난다**(잠 24:16)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언제나 용기있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세웁니다. 열심히 일하여 바라는 것을 성취해야지 하면서 밤낮으로 일하겠다고 결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과 결심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 안에 있지 않다고 하면 근본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의 **최초 삶의 질서**가 어떠했는가를 알면, 자동적으로 해답이 됩니다. **타락하기 전** 아담이 살았던 그 삶의 모델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축복된 삶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태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신년 첫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후 첫 번째로 하신 하나님의 일은 축복하신 일입니다.

1.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 :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 :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후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축복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씨를 뿌리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람을 창조하신 후 제일 먼저 하신 이 축복은, 신약에와서는 요한 3 서 이절에서 축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삼서 1 : 2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경은 이와같이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 영혼의 잘됨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 범사에 잘되는 축복을 받아야
한다, 건강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새해에는 인터넷을 청취하시는 분들이나 CD 를 듣는 모든 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안식함으로 삶을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2.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안식으로 시작하는 삶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세기 2 : 2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세기 2 : 3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사람이 창조된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이런 일 저런 일을
불철주야 하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창조되고 난 다음 제일 먼저 한 일은 곧바로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 간 일입니다. 사람은 창조된 후 이 세상에서의 첫날을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면서 지냈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육일동안 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섯째 날에 창조된
사람이 한 일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2 :3 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하였는데

이 말은 하나님과 안식하는 삶을 복 주셨으니 한 말과 같습니다.

창세기 2 : 3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은 안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하루 개념은 아침으로부터 시작하여 밤까지라고 보통 말합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낮에 일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고, 그 예비 된 것을 가지고 안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필요한 것이 예비 되지 못하면 안식이 없습니다. 필요한 것이 예비 될 때까지 걱정과
근심뿐입니다. 이것은 타락하고 난 후 삶의 개념입니다. 타락하고 난 후의 하루 개념입니다.

그러나 타락하기 전의 하루 개념은 저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 장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하루에 대한 설명은
창 1 장에 여섯 번 있습니다. 찾아 읽어보십시오.

먼저 1:5 을 보십시오.

창세기 1 : 5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8 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 : 8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런 설명은 13, 19, 23, 에도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31 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 : 31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성경적 하루의 개념은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시작하여 토요일
저녁 해질 때 끝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적인 삶의 개념은 안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네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창조 사역을 통해 다 예비해 놓으셨으니, 저녁이 되어 먼저 쉬고,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된 후 하나님과 안식함으로 시작된 인간의 최초의 삶의 모습입니다.

두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함으로 시작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런 안식으로 부터 시작하는 삶은 타락한 후 어떻게 변하였을까요?

3. 먼저 일하여야 안식할 수 있는 삶으로 변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에덴에서 쫓겨 난후, 안식하고 시작하는 삶은, 전적으로 바뀌어,
먼저 일하고 예비하여야 안식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타락한 후 인간의 삶의 모델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3 : 17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중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세기 3 : 18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창세기 3 : 19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
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소산을 먹어라,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 식물을 먹어라 하는 내가 먼저 일을 해야 안식을 할수 있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 된 후 아담의 삶은 네가 종신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 자기 삶에 필요한 것을 자기가 스스로 예비한 후 안식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필요한 것을 예비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아 얼굴에 땀을 흘려 수고하여도 땅은 수고한 만큼 소출을 내지 않습니다. 안식을 잃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인생길은 안식이 없는 괴롭고 고달픈 길이 된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2:17-18 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2 : 17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한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임이로다

전도서 2 : 18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한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여기서 사는 것을 한하였다, 모든 수고를 한하였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hate 입니다. 인용된 전도서 구절을 다시 해석하면, 내가 사는 것을 싫어했고, 수고하는 것을 싫어 했으니, 아무리 수고하여도 빈손 뿐이라. 안식을 얻을 수 없어 해아래서 사는 것을 싫어 하였다 는 뜻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삶의 모델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삶이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하나요?

4.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상실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회복되며,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나의 안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안식이 됩니다. 안식에 대한 **날의 개념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안식이 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것에 대한 깊은 공부는 구원론 다섯째 주에서 공부하고, 오늘은 안식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안식이 회복된 사람들의 삶에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1.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은혜로 예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2.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4-1.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은혜로 예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4 : 19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너희 모든 쓸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십니다.

영적 생활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범사에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강건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채워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살면서 만날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건강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믿고 살므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 우리 삶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예비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예비하는 것이다(고후 12:14)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므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자녀들의 필요를 예비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이레(창 22:14)라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도 하나님은 예비하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 건강 문제에 대한 해결, 모두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과 나의 믿음 뿐입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는 자만이 여호와 이레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안식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4-2.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8 :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은 신자가 일평생 살아 가는데 있어서 의지해야할 귀한 말씀입니다.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 가는데 있어서 슬픈 일, 괴로운 일, 견디지 못할 것 같은 어려운 일 등이 많이 있지만,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선한 결과가 여러분과 나의 생애 속에서 올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는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안식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5. 이런 안식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열심히 일합니다.

출애굽기 20 : 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출애굽기 20 : 9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십계명중 제 4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뒤에 부언하여 명하는 것은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출 20:9)”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먼저 안식하고 그다음 6 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life-style 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 때문에 일을 게을리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열심히 일합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잘되게 해주실 것이 분명한 되 열심히 일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되게 해주실 것이 분명한 되 성경공부와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실 것이 분명한 되 믿고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론

성경은 우리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5:19 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사람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사 누리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였습니다.

또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명예를 누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전 7:1).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세상 명예를 누리는 것은 나쁩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사심으로 이런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삶을 살므로,

요한 3 서 2 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새해에는 영혼의 잘됨의 축복, 범사에 잘됨의 축복, 강건의 축복이 넘치길 기원합니다.

.

